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	-------	-------	-------	-------

### 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

-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
-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열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주소서.
-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공 동 체 소 식

### 2월 성체조배: 2/4 (목) 오후 6시 30분

2월 첫째 목요일인, 2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저녁미사 후에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 2월 소공동체 모임: 2/21 (주일) 친교실

2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 주일인, 2월 21일 '오전 8시 주일미사' 이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용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당 공용 성가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환하여 주십시오.



### 세금보고 영수증: 1월 말

'2015년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Charity donation receipt)은 1월 말 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확인은 이 그레이스 (한인 공동체 재무부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3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7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1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21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24	\$ 341.00	-	\$ 450.00

\*미사책 대금: \$385

### 2016년도 미사책값: \$55

2016년도 미사책 값은 \$55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말씀의 이삭

##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니?

이연중 라파엘 | 연세우일치과병원장

1991년 2월 겨울이 끝날 무렵, 소년교도소 직원이 진료실에 찾아와서 청소년들의 치과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교도소의 의무실에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교도소 철문 안으로 들어가 의무실로 가는데, 조금 전 담장 밖보다 더욱 좁게 느껴지면서 몸이 움츠러졌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부가 같이 오는데 첫 장에 이름, 수인번호와 함께 죄명, 형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앳된 얼굴을 한 소년이 진 료실에 왔는데 외모하고는 다른,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죄명과 형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료가 여러 번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 졌을 때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 왔니?” “사실은요, 제 가 벽돌을 들고 있었는데, 지가 들이 받아서 사고(죽음)가 났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씩스러워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소년도 순식간에 감정조절 이 안 되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딱했습니다. 그러면서 십대인 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 주 수요일 진료에 더욱 관심과 정성을 다하게 되었고, 교도소의 부탁으로 교화위원으로 위촉도 받게 되면서, 청소년 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연극제, 전체 가족면회, 연주회, 권투시합, 개인 결연 등을 함께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 의무실 담당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죄명과 형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강검진 기록부가 마음에 부담이 되니, 그런 것이

적혀있지 않은 치과 차트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입견을 갖거나 고약한 죄명을 접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 후부터는 저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 왔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을 저질렀던 청소년들이 입소해, 그들을 알아가게 되면 한편으로 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소년수는 대부분 결혼가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늘 부드럽고, 밝고 맑은 표정과 따사로운 눈길로 하느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는 소년교도소였다가 지금은 외국인교도소로 바뀌어 다양한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렵지만, 역시 교 도소는 소년이든 성인이든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임 에 분명합니다. 정기적인 교도소 진료는 때로는 못마땅 한 일도 당하지만 제 자신이 수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곳을 나눔의 실천을 위한 훈련장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는 터로 늘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배우면서 저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주보에서>

### [교리상식]

####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톨릭은 46 권의 구약성경을 인정하는데 반해, 개신교는 히브리 성경 39 권만을 정경(正經)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없으나 그리스 성경에 붙어 있는 책 7 권을 외경(外經)이라 불렀습니다. 이 외경을 가톨 릭에서는 제 2 경전(토빗기·유딧기·지혜서·집회서·바룩 서·마카베오기 상·하권)이라 부르며 성경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